

제736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23년 8월 2일)

어린이박물관 특별전 ‘십장생, 열 가지 이야기’

정민영, 어린이박물관 특별전시실 18:00~18:30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 특별전 ‘십장생, 열 가지 이야기’는 국립중앙박물관의 소장품인 ‘십장생도 병풍’을 어린이의 발달에 적합한 다채로운 체험으로 풀어냈습니다.

십장생은 장수를 상징하는 열 가지 자연물로 해, 구름, 산, 물, 소나무, 바위, 불로초(영지버섯), 학, 거북이, 사슴을 가리킵니다. 옛 사람들은 오래 살거나 변치 않는다고 여긴 자연물에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소망을 담았습니다.

오늘날 어린이들은 십장생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전시는 십장생 중 하나인 사슴이 화자가 되어서 어린이들에게 친구처럼 십장생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펼쳐집니다.

“안녕? 나는 사슴이야. 옛날 사람들은 나를 신선이 타고 다니는 귀한 동물로 여겼어. 지금부터 내가 십장생을 소개해줄게. 십장생 친구들을 만나러 출발!”

사슴과 함께하는 다양한 체험을 통해 어린이들은 십장생을 이루는 열 가지 자연물의 전통적·생태적 특징을 이해하고, 오늘날 사람과 자연이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이끄는 사슴을 따라 십장생 친구들을 만나러 떠나볼까요?



그림1. 전시 포스터



그림2. 특별전시실 모습

제736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23년 8월 2일)

특별전 <영원한 여정, 특별한 동행> - 영원한 삶을 위한 선물, 상형토기

이진민, 121호 특별전시실 18:00~18:30

상형토기象形土器는 ‘어떤 형상을 본떠 흙으로 만든 그릇’입니다. 상형토기는 동물이나 사물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며, 사람이 함께 표현된 것도 있습니다. 동물모양 토기에는 새, 말, 사슴, 거북처럼 실제로 있는 동물뿐만 아니라 상상의 동물도 있습니다.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 것은 새모양 토기입니다. 부엉이처럼 특이한 사례도 있지만 대부분은 오리류를 표현하였다. 용을 닮았거나 오리와 말의 특징이 섞여 어떤 동물을 묘사했는지 특정할 수 없는 것도 있는데 이러한 부류는 상상의 동물 또는 상서로운 동물을 의미하는 서수형토기瑞獸形土器로 분류합니다. 말모양 토기 중에서 사람이 탄 것은 말 탄 사람 토기라고 부르며, 제작 당시의 갑옷이나 말갖춤까지 표현한 사례도 습니다. 사물모양 토기에는 배, 수레, 신발, 집을 본뜬 것이 있습니다. 수레모양 토기는 수레 자체를 본뜬 것도 있지만 대체로 수레바퀴 장식을 덧붙인 토기입니다.

상형토기의 큰 특징은 ‘무언가를 본떴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릇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몸통이 비어있고 액체를 담을 수 있는 구멍(注入口)과 따를 수 있는 주둥이(注出口)가 있습니다. 상형토기는 장송의례 때 쓰인 그릇이지만 제사용 그릇 이상의 사회적 의미와 상징성을 담고 있었다. 죽은 이의 영혼을 죽음 이후의 세계로 인도해주고 생전의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고 봅니다. 물론 집모양 토기나 배모양 토기 등에서 알 수 있듯 당시의 일상과 사회의 모습이 반영되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그림1. 함안 말이산 45호 무덤 출토 상형토기



그림2. 금령총 출토 말 탄 사람 토기

국보 반가사유상과 사유의 여정

신소연, 사유의 방 19:00~19:30



금동반가사유상, 6세기 후반(좌), 7세기 전반(우), 국보

<사유의 방>은 국보 반가사유상을 위한 전용 전시 공간으로 관람객은 자신만의 사유의 의미를 찾아보며 특별한 여정을 경험해볼 수 있는 전시실입니다.

반가사유상의 ‘반가半跏’란 한쪽 다리를 왼쪽 무릎 위에 올려놓은 반半결가부좌의 자세를 의미하고, ‘사유思惟’란 살짝 손을 얼굴에 댄채 깊은 생각에 잠긴 모습을 뜻합니다. 반가사유상은 인간의 생로병사를 고민하는 석가모니 부처의 태자시절 모습과 중생 구제를 위해 깊은 생각 끝에 깨달음에 도달한 보살의 모습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입가에 흐르는 신비로운 미소는 깨달음의 찰나를 상징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깊은 감동과 위안을 선사합니다.

과거 한 점씩 교대로만 볼 수 있던 두 반가사유상을 <사유의 방>에서는 함께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상은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표정, 옷차림, 제작시기가 다릅니다. 6세기 후반에 제작된 반가사유상(전시실 왼쪽)은 이목구비가 날카롭고 화려한 보관과 장신구가 특징이지만 선 하나하나가 절제되어 있습니다. 반면 7세기 전반에 제작된 반가사유상(전시실 오른쪽)은 노출된 상반신에 간결한 보관과 장신구만 걸치고 있지만, 무릎 아래 옷주름은 울동적입니다. 두 반가사유상은 화려하면서도 절제되어 있고 간결하면서도 생동감 넘치는 삼국시대 불상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이번 전시 공간을 위해 박물관은 건축가와 협업하여 반가사유상의 에너지와 전시 공간이 하나가 되는 새로운 전시를 탄생시켰습니다. 기울어진 벽과 바닥, 천장은 현실을 벗어난 초현실적인 느낌을 주며 천장의 은은한 별빛은 우주의 무한한 공간을 상징합니다. 두루 헤아리며 깊은 생각에 잠기는 시간-사유의 방에서 나만의 특별한 경험의 여정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범종

김민송, 302호 금속공예실 19:00~19:30

박물관을 둘러보다 여러 전시실에서 여러 종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범종은 절에서 시간을 알릴 때, 대중을 모이게 하거나 의식을 행할 때 쓰이는 종을 말합니다. 불교에서 종을 치는 이유는 소리를 통해 지옥의 중생들까지 구제하기 위함입니다. 한국의 범종은 불교가 전래된 삼국시대부터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 남아있는 종은 통일신라시대의 범종이 가장 오래된 예이며, 이후 고려·조선시대에도 꾸준히 제작되었습니다.

한국의 범종은 중국종, 일본종과는 다른 독창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형태를 살펴보면 종을 매다는 고리인 종뉴와 몸체인 종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뉴는 용의 형태를 보이고 있어 용뉴라고도 부르며, 고래를 무서워하는 상상의 바다짐승인 포위를 상징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 종과 중국 종은 하나의 몸체로 이어진 쌍룡이지만 한국의 종은 한 마리의 용으로 구성된 점이 특징입니다. 용뉴 옆에 있는 음통은 한국의 범종의 고유한 특징으로 종신과 연결된 부분에 작은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음통의 역할에 대해서는 종의 공명과 관련 된 기능 등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종신은 통일신라시대는 향아리처럼 가운데가 볼록하고 아래쪽이 살짝 오므라진 형태이며, 고려시대는 종구 쪽이 좁아지는 경향이 점차 사라지고 직선화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조선시대는 고려 말 중국 종의 영향을 받아 종신이 점차 바깥으로 벌어지거나 원추형, 삼각형과 같은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합니다. 종신의 위와 아랫부분을 보면 장식띠가 둘러져 있는데, 이를 상대와 하대라고 합니다. 상대 아래 4곳에는 사다리꼴 껍 장식(연곽, 蓮廓)이 있고 그 안에 9개의 연꽃 봉오리(연뢰, 蓮蕾)가 있습니다. 연꽃봉오리로 장식하는 것은 한국 범종만의 특징입니다. 종신의 1/3 정도에 위치한 원형 연꽃 장식은 종을 치는 위치인 당좌이며, 당좌 사이에 비천·불보살상 등이 장식됩니다.

한국의 범종은 외형뿐만 아니라 재료에서도 고유성을 보입니다. 주석청동으로 종을 제작하여 소리가 맑고 맥놀이 현상으로 인해 오랜 시간 멀리까지 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국의 범종은 이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시대에 따라 문양, 장식 표현 등의 변화를 보이며 때때로 중국 종의 영향을 받으며 조선시대까지 꾸준히 제작됩니다.